

# 2024 November

# Hana

#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10월 동향

미 대선 이슈 반영된 미 국채금리 급등 영향 및 연준 금리 정책 재조정 가능성 등으로 급등세 시현. 이후 3분기 국내 성장률 충격 등으로 대외 요인 영향 반영 제한 속 상승 추세 다소 완화되며 마감

10월 첫주 연휴 이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국내 물가 하락 경로 속 중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대내적 WGBI 편입 소식 등이 국고채 시장 강세 견인하며 금리 하락세 시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에도 견조한 흐름 보인 미국 경제지표 영향과 연준인사들간 금리인하 경로 견해가 엇갈린 점이 매파적으로 작용

대내적 3분기 성장률 충격 영향과 이에 따른 한은 비둘기적 통화정책 운용 기대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 대선과 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 10월 평균

국고채(3년): 2.90%

T-Note(10년):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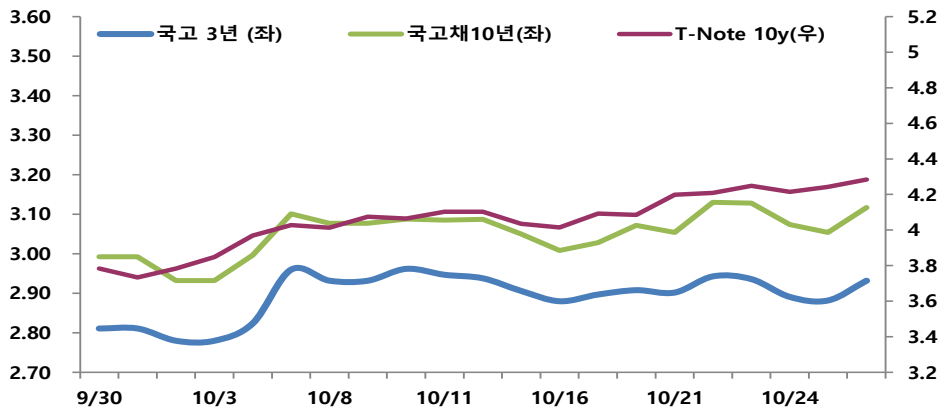
- 월초, 파월 의장의 9월 빅컷 이후 경로는 경제상황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란 발언이 매파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과 국내 물가지표 1.6% 증가 소식에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후로 국내 WGBI 편입 소식에 국고채 시장 강세 흐름 속 금리 하락 추세 지속 시현

  - 월 초, 파월 의장 통화정책 경로 관련 발언이 11월 빅컷 결정과 거리를 두는 뉘앙스의 매파적 성향 인식되었지만, 중등 불안정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국내 물가 하락 소식 등으로 금리 하락 출발
  - 이후, 미 실업률 둔화 등 탄탄한 고용 지표 발표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우리나라 WGBI 편입 소식 속에 한은의 비둘기적 인식 금리인하 결정이 뒤따르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추세 지속 시현
- 중반, 미 9월 PPI 하락에도 연준내 금리인하 견해가 엇갈린 점이 매파적으로 작용. 이어 글로벌 반도체 실적 부진에 안전자산 선호 영향 반영되었으나, 탄탄한 흐름을 보인 미 경제지표 영향 등으로 재차 상승 추세 전환

  - 중반, 주요 연준 당국자들간 금리 경로 견해가 엇갈리게 표명되며, 이점이 매파적으로 작용. 하지만 미 9월 PPI 시장 예상 하회 영향이 수급상 국내 국고채 시장 매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영국
  - 이어, 미 10월 엠파이트 제조업 지표 부진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실적의 쇼크 영향으로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었으나, 이어진 미 소매판매 지표와 고용 호조 영향이 크게 반영되며 상승 흐름 전환
- 후반, 국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쇼크 영향과 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전환 후, 미 대선 경계감과 탄탄한 미 경기지표 결과 반영 속 소폭 상승 흐름 마감

  - 후반, 국내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예상치 0.49%보다 크게 낮은 0.1%에 그친 충격이 반영된 가운데 미 실업지표 부진과 중등 이슈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큰 폭 하락 전환
  - 이어 미 대선 관련 변동성 확대 및 견조한 경기 상황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상승 흐름에 동조화되며 소폭 상승 흐름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11월 전망

미 대선 이후 복합적 불확실성 해소 인식 등에 따라 미 국채금리 상승 탄력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경기 불안정성에 따른 한은에 대한 비둘기 기대 등도 국고채 금리 하향 전환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3.38	2.95 <sup>(F)</sup>	2.80 <sup>(F)</sup>

미 대선 결과가 누가 결정되든 불확실성 해소 인식과 연이은 연준 '베이비컷' 영향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을 되돌리는데 영향 미칠 전망이다

11월 연준은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상된 25bp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다만 그 효과는 트럼프 당선보다 해리스 당선에서 크게 나타날 듯

11월 국고채(3Y) 금리는 2.80%~2.90%

- 미 대선 향방에 따라 미 국채금리 큰 변동성에 노출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인식과 통화정책 결과 반영하며 소폭 하락 전환 예상. 해리스 당선 시 그 속도는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가운데 원화 금리도 동 정보에 동조화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인식 속 '트럼프트레이드' 선반영 측면에 따라 트럼프 당선 시 미 금리 상승분 일부 되돌림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해리스 당선 경우에도 트럼프 공약 대비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 가능성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역시 미 국채금리는 하락 전환이 예상
  - 하지만, 연이은 연준 금리 결정이 트럼프 시, 극히 일부 동결 가능성 있다는 점은 매파적 금리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반면 해리스 경우 예정 경로 유지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11월 FOMC는 점도표상 정책 경로 25bp 인하를 예정대로 단행할 것으로 보임. 미 대선 이슈와 맞물림에 따라 대선결과에 다소 중속되며 시장 영향 제한될 여지 있긴 하나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영향 및 해리스 당선 시 재차 금리 하락세 우위 선회 가능성 대두될 전망이다
  - 11월 FOMC의 통화정책은 점도표 상 25bp 인하 결정이 예상. 다만, 트럼프 우세 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은 매파적 영향으로 시장에 반영될 전망이다
  - 다만, 미 대선 결과가 누구이든 미 금리는 연준 통화정책 요인과 대선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하는 가운데 국내외 금리의 상단은 다소간 제한 받을 것으로 보임
- 10월 트럼프트레이드 반영한 미국채 금리 급등에도 국내 3분기 성장을 쇼크에 국고채 금리 상승력은 상대적 제한된 국면. 11월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 영향과 국내 경기 부진 우려 속 한은 도비시 스탠스에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강화 움직임이 11월 중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 국내 3분기 성장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운데 유가 하락 등에 따른 물가 1%대 초반 예상과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 반영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다만, 한은의 도비시 스탠스 전망에도 실질적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하방 압력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지속 가능성 (트럼프 당선 시)</li> <li>· 한은 금리 동결 결정에도 매파적 의지 표명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리스 당선 시, 트럼프트레이드 되돌림</li> <li>· 국내 경기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10월 동향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미 대선 불확실성 반영한 미 국제 금리 상승으로 환율은 급등.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속 한은 금리 인하와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에 1,380원대 전후 등락

미 고용 호조와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우려에 따른 연준 추가 빅컷 기대 후퇴 및 강달러에 환율은 상승 출발 후 한은 피벗 결정에도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에 상당 제한됨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반영한 글로벌 강달러 기조 속 미 대선과 중동 불안 등 대외적 리스크에 환율 상승세 이어졌으나 당국 개입 경계감 강화되며 추가 상승은 제한

미 경제의 견조함과 미 대선 리스크 등에 달러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부진한 국내 3분기 성장률과 외국인 증시 매도세에 원화 약세 압력 커지며 1,300원 후반대에서 등락

- 월초, 미 비농업 고용 개선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연준 통화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되며 환율은 큰 폭 상승 출발 후 한은의 매파적 금리인하에 추가 상승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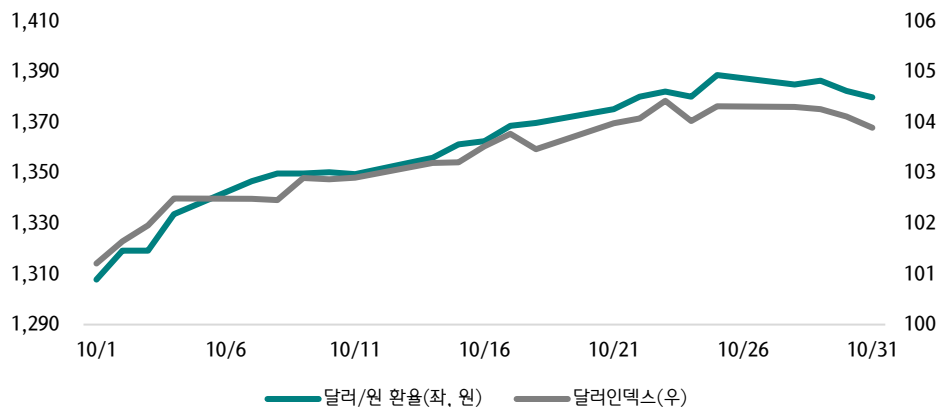
  - 월초, 시장은 추가 빅컷 가능성을 배제한 파월 의장 연설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에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예상 속 견조한 미 노동시장 확인되면서 환율 급등 출발
  - 중국 경기부양책 실망감에 기인한 위안화 약세에 원화도 동조화되며 상승폭 확대. 이후 금통위 피벗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강조한 한은 총재 발언에 연속 인하 기대 약화에 따라 상당 제한된 형국
- 월 중반, 연준 관계자들이 향후 금리인하 속도가 완만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미 대선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확산되면서 1,300원 후반대로 상승

  - 중반, 미 PPI 둔화에도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측면이 강달러 지지한 국면 속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위험회피 분위기 확산되며 상승세 지속
  -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과 관세 정책 등 물가 반등 우려를 선반영한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속 미 국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압력에 1,380원대 진입 후 당국 개입 경계감 강화되자 상당 제한된 채 등락
- 후반, 견조한 미국 경제와 미 대선 경계감이 달러 강세를 자극. 여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국내 경기 상황과 외국인 증시 자금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1,380원대 전후 등락 마감

  - 후반, 주요국 간 차별화된 성장세에 연준과 여타 중앙은행 간 금리인하 속도 차 확대 가능성 높아진 측면이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한국 GDP 부진 소식과 증시 외자 유출 등에 원화 약세 지속
  - 이어 미 대선 리스크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달러 지지력 유지되었으나 예상보다 양호한 유로존 성장률과 BOJ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강달러 압력 일부 완화되며 1,380원대에서 상당 제한 속 마감

10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65.4  
10월말 달러/원 환율 : 1,379.9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 11월 전망

미 대선 결과 향방에 따라 변동성 확대되겠으나 불확실성 해소와 연준 금리인하 기조 부각에 강달러 되돌림 나타날 전망. 반면, 대내 경제 펀더멘털 불안정성과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화 강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71	1,358	1,360 <sup>(F)</sup>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 움직임에 원화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Fed 통화 완화 정책 기조에 강달러의 되돌림 나타나며 환율 하락 방향성 보일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 경제 펀더멘털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인 원화 약세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시장 변동성 확대될 경우 당국 개입 경계감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11월 달러/원 환율  
1,350원 ~1,405원 예상

-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한 달러 방향성에 연동되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겠으나 불확실성 해소와 11월 FOMC에서 연준 완화적 기조 유지될 측면 고려 시 환율은 다소 되돌림될 전망

  -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시 재정 및 관세 정책 등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에 따른 미 국제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 판단에 그간 반영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강달러 되돌림 나타날 것으로 예상
  - 11월 FOMC 25bp 추가 인하와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경로 등 Fed 통화정책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가운데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당선 시 달러 약세 영향을 더 크게 반영하며 환율 하락폭 결정될 전망
-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상태 지속에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위험회피 심리가 잔존하는 가운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대된 측면이 원화의 추가 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군사시설에 한정됨에 따라 유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란의 재보복 가능성 등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고조될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재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점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원화의 평가 절하에 영향 미칠 요인으로 판단
- 한국 성장을 부진 등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한은 비둘기파적 스탠스 강화 가능성 등 원화 강세 요인은 여전히 부재한 국면 속에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될 점에 유의할 필요

  - 수출 감소세 전환에 한국 3분기 GDP는 전기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치며 경제 불확실성 여전.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물가 1%대 진입에 따른 한은의 도비시 스탠스 가능성도 원화 강세 제한에 영향 미칠 전망
  - 반도체 부문 투자 심리 악화로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될 경우 외환 수급에 부정적 영향 예상되나 환율 변동성 확대 속 1,400원선 근접 시 외환당국 속도 조절 나설 가능성은 상당 제한할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나타날 미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li> <li>· 중동,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위험회피 심리</li> <li>· 대내적 경제 펀더멘털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리스 후보 당선 시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 달러 약세</li> <li>· 연준의 통화완화 정책 기조 부각</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 인식 등이 달러 약세에 소폭 영향 미치겠지만, 일본내 정치 리스크의 완화적 통화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엔화 추가 약세 가능성이 우위에 있을 전망

10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9.9

10월 엔/원 평균환율 : 907.2

11월 엔/원 예상범위 : 895~925원

- (엔화 동향) 이시바 일본 총리가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예상을 크게 웃돈 미 비농업 고용지표와 그에 따른 연준 빅컷 기대 후퇴에 엔화는 약세 출발. 중반,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 발언과 미 대선 불확실성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엔화 약세 폭 확대. 후반,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약세 흐름 이어졌으나 10월 금정위 금리동결에도 우에다 총재 발언에 대한 매파적 인식에 강세 전환하며 마감
- (엔/원 전망) 연준 통화정책의 엔화에 대한 영향 제한 가능성 속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일 금리차 확대 등으로 엔 약세 심화할 전망. 반면, 해리스 당선은 엔화의 강세 전환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해리스가 우위에 서더라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참패에 따른 영향의 통화정책 반영 가능성을 고려하면 엔화 약세 기조가 다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연준의 11월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달러 약세가 엔화 강세 전환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전망. 이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일 금리차 확대에 엔화 약세가 재차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예상
  - 반면, 해리스의 당선은 '트럼프트레이드' 되돌림 반영으로 엔화 강세 요인이거나, 일본내 정치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면 엔화 약세 추세는 유효할 전망. 이에 엔/원 환율은 미 대선 이후 원화의 상대적 강세 예상 속에 900원대 초반 흐름을 보일 전망

## 유로/원 전망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연준 추가 금리인하 등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에도 수출과 제조업 중심 미약한 경기 동력 속 추세적 물가 하락을 반영한 ECB '빅컷' 기대 등이 전반적 유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0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97

10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83.6

1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0~1,500원

- (유로화 동향) 유로존 9월 CPI의 1%대 진입으로 ECB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로화는 약세 출발. 중반, ECB의 25bp 인하 결정이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12월 빅컷 가능성이 제기되며 약세 폭이 확대됨. 후반, 미 대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반영한 위험회피 심리와 ECB 정책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약세 흐름 이어졌으나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유로존 성장률과 물가 반등에 ECB 빅컷 기대 누그러지며 강세 전환 후 마감
- 독일 3분기 성장률 반등에도 수출 부진과 제조업 중심 부진이 이어지는 국면. 여기에 중국과의 전기차 관세 마찰 등도 경기 우려를 키우는 요인. 동 상황에서 CPI가 2%를 하회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연속적 인하 속 '빅컷'론 대두 등이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로존 핵심국 독일 3분기 성장률이 반등세로 돌아섰음에도 여전히 역대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여기에 중국에 대한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논란에 따른 보복 관세 우려 등도 향후 경기 방향성에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요인이 되며 경기 전반의 활력을 떨굴 전망
  - 여기에 물가 2% 하회에 따라 ECB에 대한 시장 '빅컷' 기대가 높아지는 측면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유로/원은 미 대선과 FOMC 이후 원화 1,350원 근접 예상 등으로 소폭 하락한 1,470원대 전후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1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1월 주요 ISSUE</b> 미국 대통령 선거(11/5) RBA 통화정책회의(11/5) 미국 FOMC(11/6~7) MSCI 반기 리뷰(11/7) BOE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1/7) APEC 정상회의(11/10~16)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11/12) G20 정상회의(11/18~19)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경제전망)(11/28)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OECD 경제전망 보고서(11월 중)	<b>1 미국고용보고서</b> 한 10월 수출/입(YoY +7.5%, +2.2%) S&P 글로벌 제조업 PMI 미 9월 건설지출(MoM -0.1%) 10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254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1%)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중 10월 Calxin 제조업 PMI(49.3) 일 10월 지분 운영 제조업 PMI(F)	<b>2</b>
<b>3</b>	<b>4</b> <b>[휴장] 일본(대체휴일)</b>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미 9월 제조업수주, 내구재 주문(F) 유 10월 HCOB 제조업 PMI(F)	<b>5 미국 대통령선거</b> 미국 대통령 선거 RBA 통화정책회의 일본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시작 한 9월 CPI(MoM +0.1%, YoY +1.6%) CPI 근원(YoY +2.0%) 미 10월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중 10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b>6 미국FOMC(~7), 기준일</b> 미국 FOMC(~7) : 연내 남은 회의에서 각 25bp 인아 전망 우세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미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유 9월 PPI(MoM +0.6%, YoY -2.3%) 일 10월 지분 운영 종합, 서비스 PMI(F) 독 9월 공장수주전월비 (-5.8%)	<b>7 BOE 통화정책회의, MSCI반기리뷰</b> <b>BOE 통화정책회의</b> <b>MSCI 반기리뷰</b> 미 9월 도매무역, 도매재고(F)(MoM +0.1%) 소비자신용지수 중 10월 수출/입(YoY +1.6%, -0.5%) 유 9월 소매판매(MoM +0.2%, YoY +0.8%) 일 9월 실질 임금증액(YoY -0.6%)	<b>8</b> 미 11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9월 가계 소비지출(YoY -1.9%) 동행지수, 선행지수(P)	<b>9</b>
<b>10 APEC 정상회의(~16)</b>	<b>11 중국 광군절</b> <b>중국 광군절</b> 한 10월 1~10월 수출/입 (YoY +33.2%, +3.2%) 유 11월 ZEW 서베이 예상 일 10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전망(47.8, 49.7) 공각기계 수주(F)	<b>12</b>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1.5) 유 11월 ZEW 서베이 예상 일 10월 통화량 M2(YoY +1.2%) 독 10월 CPI (YoY 2.00%, MoM 0.40%) 공각기계 수주(F)	<b>13</b> 한 10월 수입물가(MoM -2.2%, YoY -3.3%) 수출물가(MoM -2.3%, YoY +1.2%) 실업률(2.5%) 미 10월 CPI(MoM +0.2%, YoY +2.4%) CPI 근원(MoM +0.3%, YoY +3.3%)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5%) 유 9월 산업생산(MoM +1.8%, YoY +0.1%) 일 10월 PPI(MoM +0.0%, YoY +2.8%)	<b>14 올선만기일,수능일(10시개장)</b> <b>올선만기일</b> <b>대학수학능력시험</b> 한 9월 통화량 M2(MoM +0.2%) 미 10월 PPI(MoM +0.0%, YoY +1.8%) PPI 근원(MoM +0.2%, YoY +2.8%) 유 3Q GDP(P)(QoQ +0.2%, YoY +0.6%) 고용(P)(QoQ +0.2%, YoY +0.8%)	<b>15</b> 미 10월 소매판매 (MoM +0.4%) 소매판매 근원(MoM +0.5%) 광공업생산(MoM -0.3%), 설비가동률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1.9) 중 10월 신규주택가격, 실업률(5.1%) 광공업생산(YoY +5.4%), 소매판매(YoY +3.2%) 일 3Q GDP(P)(QoQ +0.7%, YoY +2.9%) 9월 3차 산업지수,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b>16</b>
<b>17</b>	<b>18 G20 정상회의(~19)</b> 미 11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2.2) NAHB 주택시장지수(43) 일 9월 핵심기계수주 (MoM -1.9%, YoY -3.4%) 10월 전국, 도쿄 백화점 판매	<b>19</b> 미 10월 주택착공건수(MoM -0.5%) 건축허가(MoM -2.9%) 유 10월 CPI(F)(MoM -0.1%, YoY +1.7%) CPI 근원(F)(MoM +0.1%, YoY +2.7%)	<b>20</b>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한 10월 PPI(YoY +1.0%) 유 9월 건설 생산(MoM 0.1%) 일 10월 수출/입(YoY -1.7%, +2.1%) 호 10월 웨스트팩 선행지수 전월비 (0.03%) 독 10월 PPI (MoM -0.5%, YoY -1.4%)	<b>21</b> 한 11월 1~20일 수출/입(YoY -2.9%, -10.1%) 미 10월 선행지수(MoM -0.5%) 기준주택매매(MoM -1.0%)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0.3)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유 11월 소비자대지수(P)	<b>22</b> 미 11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P)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11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10월 전국, 국내 CPI 11월 지분 운영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호 11월 주도운영 호우PMI종합	<b>23</b>
<b>24</b>	<b>25 MSCI 리밸런싱</b> MSCI 리밸런싱일 : 11월 MSCI 반기리뷰 결과에 따른 리밸런싱 제1회 수력의 날 미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11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b>26</b>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101.7) 미 10월 신규주택매매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6)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10월 PPI 서비스	<b>27</b> [채권]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한 12월 기업경기조사 제조업, 비제조업 미 3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5) 10월 도매재고(P), 소매재고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중 10월 광업기업이익, 산업생산 호 10월 CPI 전년비(2.10%)	<b>28 한국 금융통화위원회</b> <b>한국(추수감사절)</b> <b>[휴정] 미국(추수감사절)</b> <b>[한국 금융통화위원회]</b>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25%로 25bp 인하, 3년 2개월 만에 피벗 단행 (2) 올해 마지막 금통위. 한은은 금융 안정 확신 필요하다는 입장. 동결 가능성 우세	<b>29 미국 블랙프라이데이</b> <b>미국 블랙프라이데이</b> : <b>미 중시 초기 폐장(한국시간 오전 3시)</b> 한 10월 광공업생산 미 11월 MNE 시카고 PMI 유 11월 CPI(F), CPI 근원(F) 일 10월 실업률, 소매판매 광공업생산(P), 주택착공건수 11월 도쿄 CPI, CPI 근원	<b>30</b>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